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9호 【무게 제25548호】 주제 106 (2017)년 2월 8일 (수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69돛기념 인민무력성보고회진행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무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만세!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조국수호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이 힘있게 과시되고있는 속에 온 나라 선안군민은 주체적혁명무력건설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2월 8일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혁사의 날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정규적혁명무력 건설에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주체조선의 백두대산의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69돛기념 인민무력성보고회가 7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명식동지를 비롯한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 군인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보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보고회 황병서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적신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집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69돛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제시하신 정규적혁명무력건설사상과 로선의 빛나는 승려이라고 하면서 다음

과 같이 계속하였다.

자주의 기치높이 민족자유의 힘으로 조국해방의 백사적의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제 34(1945)년 8월 20일 군사정치간부들 앞에서 하신 연설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건설에 대하여》에서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적요구로, 새 조국건설의 3대과업의 하나로 제시하시었다.

해방후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정략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불후의 고전적로작 《혁명군대를 건설하기 위하여》, 《보안간부훈련소의 당면과업》, 《중양보안간부학교의 임무》, 《참마은 인민의 군대, 현대적 인 정규군대를 창건하자》를 편이 발표하시어 항일의 혁명전통을 이어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되고 현대적인 군사과학과 기술로 장비된 혁명적정규군대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할데 대한 방침과 그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력건설로선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첫 시기가부터 자기 당, 자기 수령,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주체형의 혁명무력, 백두의 혁명정신을 영원한 빛과 승리로 간직한 불멸의 혁명강군으로 건설될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것은 군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식으로, 우리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지향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적당과 인민의 정언이 있고 항일의 불길속에서 비현실 혁명무력건설전통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비상한 건군열의가 있기에 얼마든지 정규화된 혁명군대를 신속히 건설할수 있다는 역사의 심령과 배명을 지니시고 정규무력건설에서 시종일관 지역자강의 원칙을 구현하시었다.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비롯한 군사정치간부양성기지를 창설해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적정함을 완전히

뿌리째고 군사교육을 철저히 우리 식으로, 우리의 실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시었다.

정규군의 핵심부대로 될 보안간부 훈련소들을 먼저 조직하고 그것을 확대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정규적혁명무력을 창설하는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새로 조직된 군중, 병중부대들에서 우리 식의 군사규정과 교범, 부대지휘관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강성결에 앞서 먼저 평원길을 걸으면서 우리 나라 명기공원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고 정규군건설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어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현대전에 대처할수 있는 수단들로 장비한 정규적혁명무력이 빠른 기간에 건설될수 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의 건군위업실현에 바치으신 끝없는 헌신과 로고의 고귀한 결실이다.

피어린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혁명적동지애의 새 역사, 일일단결의 전통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규무력건설의 나날에도 풍자적신뢰와 단결을 우리 군대의 힘의 원천으로 내세우시고 군인들을 사랑의 함에 안아 혁명가로 역사적 기워 주시었다.

정밀한 모동자, 농민의 아들딸들을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를 비롯한 군사교육기관들과 보안간부 훈련소들에 불러주시였으며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군인들의 군무생활을 친아버이의 심정으로 보살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험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평양학원의 미전을 잡아주시고 군보의 창간사업과 군가와 군가, 군복도인장작을 위해 필사마저 미루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탁월한 건군실사상과 정력적인 령도, 뜨거운 사랑과 고귀한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정규무력창설을 위한 모든 준비를 성과적으로 끝낼수 있게 되었으며 마침내 1948년 2월 8일 주체형

의 정규적혁명무력의 탄생은 온 세상에 선포할수 있었다.

이것은 백두대산에서 시작된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섰음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운명개혁에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사건이었다.

강위력한 정규적혁명무력을 건설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인민군대는 해방후 새 사회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무장으로 확고히 담보할수 있게 되었으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남강도 미제를 완승하는 군사적기적을 안아올수 있었다.

혁명병도의 전기간 언제나 총대강화에 선자적인 힘을 넣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위적군사로선과 《일당백》구조관찰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인민군대를 당적사상체제가 확고히 되고 무비의 전투력을 지닌 혁명강군으로,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행동을 겁음마다 거부 서버리는 사회주의조국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키워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비범한 군사적예지, 탁월한 명군술로 혁명적정규무력건설의 가장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백두대산의 령도를 펼쳐주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적업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주체적인 건군실사상과 업적은 불세출의 선군명장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며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낯익은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전군김일성주의의회를 건국설의 총책임자로 제시하시

인민군대를 완전무결한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혁명의 존엄한 시련의 시기 선군정치를 전면적으로 펼쳐시어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 키워주시고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헌신투쟁의 기적을 펼쳐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우리 인민군대를 영원히 수령님과 장군님의 군대로 만드시려는 드림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정력적인 령도로 결사위인들의 군건설업적을 굳건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기신 령도의 발자취를 따라 인민군부대, 구부대들을 찾고찾으시며 전투력을 지닌 혁명강군으로, 미제의 끊임없는 침략행동을 겁음마다 거부 서버리는 사회주의조국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키워주시었다.

참으로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비범한 군사적예지, 탁월한 명군술로 혁명적정규무력건설의 가장 빛나는 본보기를 창조하시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백두대산의 령도를 펼쳐주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혁명적업은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주체적인 건군실사상과 업적은 불세출의 선군명장들을 대를 이어 높이 모시며 더욱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는것을 낯익은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는 전군김일성주의의회를 건국설의 총책임자로 제시하시

이 군력강화의 불미함을 세상에 알리시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넘칠대로 이 땅에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야 할 무조건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사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군을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군대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군대, 당의 군대로, 그 어떤 강적도 관습할수 없는 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합니다.》

보고자는 모든 인민군장병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주체의 선군대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서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건군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게 대하여 언급하였다.

3 번으로 계속



















